

아주대의료원 소식

아주대병원, 간이식수술 성공



▲王熙正, 金明배, 李숙영 교수(왼쪽부터)

아주대학교병원 간이식수술팀(팀장 외과 金明배 주임교수, 王熙正교수, 마취과 李숙영교수)이 27일 경기도내 최초로 간이식수술에 성공했다. 간이식수술은 이식수술중에서도 고도의 난이도와 의료진의 팀웍, 첨단장비가 구비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아주대학교병원은 신선태병원으로서 개원 1년이 아니되어 간이식수술 성공의 계기를 올린 것이다.

이번 수술의 공여자는 고병진씨(남자, 19세)로서 4월23일 교통사고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문센터에 들어왔다. 그러나 내원당시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심각해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있음을 통보하자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헛पी하지 않기로 결정, 만성질환으로 장기이식에 의한 치료가외에는 회생할 수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고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병원측에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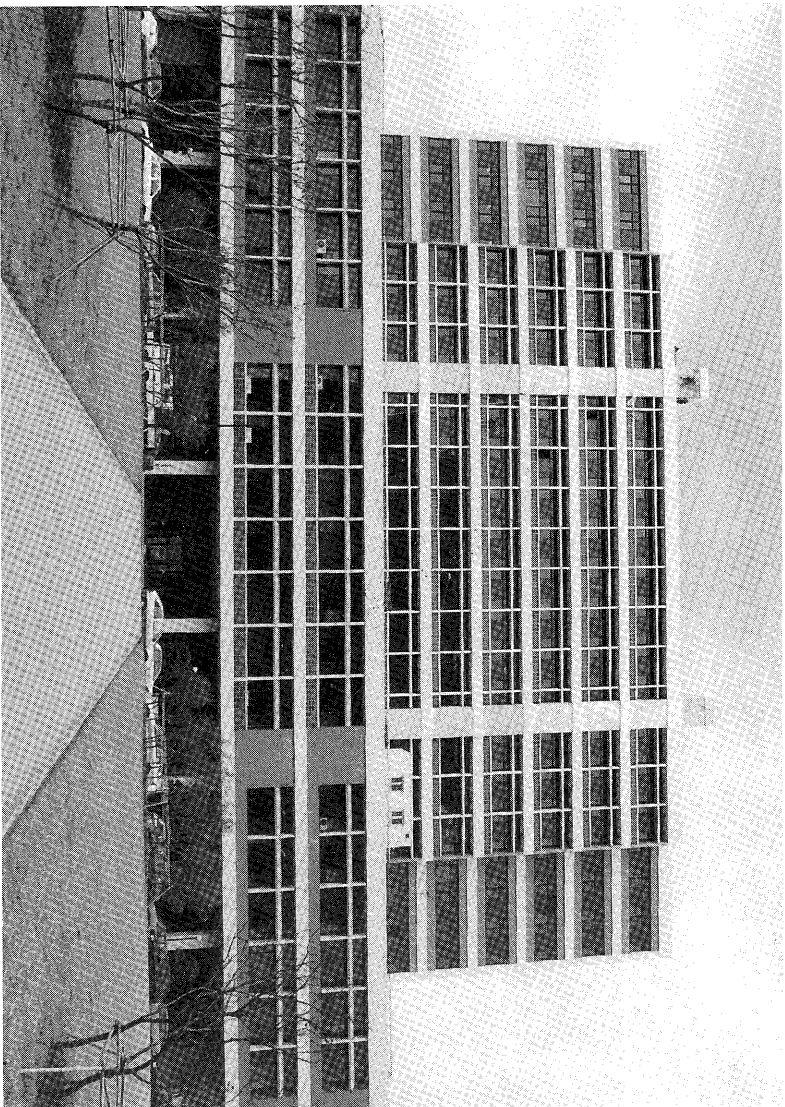
이후 병원측은 보호자의 뜻을 존중하여 뇌사위원회(신경과 朱仁壽교수, 신경외과 安樂敏, 安樂煥교수)를 소집, 8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뇌사여부를 최종 확인한후 공여자의 간장,

신장, 심장판막에 대한 장기 적출에 들어갔다. 이때의 시간이 26일 오후 7시, 장기적출이 끝난 시간은 9시30분이였다. 이후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간이식수술을 위해 공여자의 간장을 다듬는등 수술준비를 한 후 수여자에게 시술을 시작한 것이 오후 11시30분, 수자에게 대한 수술이 마무리 된것은 27일 오후 1시였다. 총 12시간30분이 소요된 대수술이였다.

이번 간이식수술의 수여자는 김모씨(38세된 남자환자)로서 난치성 복수, 황달, 간활적인 간성훈수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이는 말기 간경화증 환자였다. 따라서 반복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회생이 불가능해서 아주대학교병원에 4월12일 입원,이식대상자로 등록된 환자였다.

수술후 닷새가 지난 5월2일 오후1시 현재 수여자의 상태는 양호한 회복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확인을 위해서는 한달간 집중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집도의사인 王熙正교수가 밝히고 있다.

1985년 5월호
통권 제 7 호
발행인 겸 편집인/李成洛
편집 집/홍보과
발행처/아주대학교의료원
주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전동 산 5번지
전화/(0331)219-5114



중심으로 하는 바이 러스, 중앙화, 실험 병리학, 내분비학 등 4개 연구실이 자리잡게 되며 의과학 연구소장실은 4층에 위치하게 된다.

3층을 사용하게 될 의화도서실은 연면적 260평으로서 의화지널 602종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개기식 열람실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열람 식은 총 150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화도서실에는 사서과 이외에도 시청각교육과가 함께 자리하면서 교육 및 연구용 자료 제작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화관 증축공사 5월말에 마무리 - 공정을 95%

지난해 6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 의화관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사진). 현재 건적이 공사와 비터사이트 공사 그리고 외부 페인트 작업 등이 한창인 이번 공사는 연건평 3천3백85평의 4층 건물인 의화관을 10층으로 올림으로서 2천4백여평 늘어난 5천7백73평 규모로 증축하는 것.

5월1일 현재 공정을 95%로서 5월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의화관에는 의과대학외에 의과화연구소, 의화도서실, 각종 실험실습실, 기초 및 임상各科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이 새로운 자리를 잡게된다.

이번 의화관 공사는 기본적으로 건물의 양쪽 끝을 실험실 공간으로, 중앙부분에는 교수연구실 및 강의실을

배치시킨다는 전제이래 실험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경량 칸막이로 마감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각 층문에는 PC SUN BREAKER 공법을 도입하여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킨 것. 또한 설계전 각 교실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관된 교실들을 같은 층에 배치함으로써 연구 및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킨 점 등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의화관 5~6층에 자리잡게 될 의과화연구소는 시설 및 공간 배치를 공동 연구실 개념으로 설계하여 대단위 실험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 5층에는 기초학종심의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의화유전학 등 4개 연구실이 들어서게 되고, 6층에는 임상외학을

의화관 완공 직후 6월부터는 지하1층부터 3층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약 2~3개월간 진행할 예정인데 1층 사쪽 공간을 2백석 규모의 계단강의실 및 강당으로, 병원쪽에서 보이는 3층 전면은 의화도서실로 개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의 탁구장은 학생 자활 학습실로 개조해 부족했던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늘여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한편, 이미 확장공사를 끝내고 의도된 교직원 및 의학과 학생들의 휴게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선인재도 계산 산업에서 내부 인터리어를 설계 및 시공했는데 천정에 아트리움을 설치, 태양광선이 내부를 비춤으로서 안정되고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일반인을 위한 정기 건강교육 프로그램

- 건강공개강좌, 당뇨교실, 발달지연이동교실,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 환자간호를 위한 공개강좌

우리가 희망하는 21세기는 건강복지사회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1세기 건강복지사회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길잡이로서 여러 건강관련 공개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건강공개강좌

사회사업과에서 주관하는 건강공개강좌는 매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루었던 주제를 살펴보면 골다공증, 중풍, 각종 종양, 신장병 등으로서 열두번을 개최했다. 건강공개강좌에서는 질병에 대한 증상, 예방법, 치료법 등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인데 많은 주민들이 수강을 원하는 관계로 예약을 받아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문의 - 5591).

당뇨교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이용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내 상당히 많은 당뇨병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들 당뇨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분비내과사내과, 안과, 영양과, 사회사업과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뇨교실을 열고 있다. 당뇨교실은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본원 12층회의실에서 열리며 매월 마지막 화요일 12시부터 14시까지 당뇨부채를 열어 식사요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문의- 5591).

발달지연이동교실

재활의학과에서는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바른인식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지연이동교실」이란 공개강좌를 마련, 지난 1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본원 3층 외래회의실에서 열고 있다.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는 본인 재활의학과 任(職)교수가 맡고 있으며, 강의내용은 둘째 목요일에는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의학상식과 정보, 언어치료법 등을 강의하고, 넷째 목요일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과 작업치료법 등을 강의하게 된다. 특히 작업치료에서는 활동능력, 인지능력, 감각능력 등을 증대하는 치료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문의 - 5802, 5796).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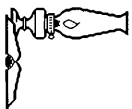
알레르기과리넵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알레르기 및 기관지 천식환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을 개설하여 알레르기 및

기관지 천식질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문의 - 5802).

환자간호를 위한 공개강좌

의료지원부(간호부)에서는 낮은 병원생활에 쉽게 친숙해지고 병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 본원에 내원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병원의 일반적인 안내사항 및 교육을 지난 1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3시까지 병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리며, 강의와 시범, 시청각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인체의 신비, 신전신후관리,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법, 고혈압환자의 혈압조절, 의료보험의 일반상식, 가정에서의 물리치료법, 환자이동방법, 수술전후 환자 간호, 장기환자의 욕창관리 및 피부관리, 투석환자 간호, 합병증을 위한 올바른 체위, 노인환자의 자기관동요법 등 주의 깊게 간호해야 할 환자는 물론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의학정보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문의- 5521).

교육명	일시	장소	대상	주최	문의처
건강공개강좌	매월	2층 회의실	수원 및 인근 지역 주민	사회사업과	219 - 5591
당뇨교실	매주목요일 9~10시	12층 회의실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내분비내과	219 - 5591
발달지연이동교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5~16시	외래 3층 회의실	뇌성마비 및 발달장애아동 등 둔 부모	재활의학과	219 - 5802 219 - 5796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	매주 목요일 13~14시	2층 회의실	수원 인근지역 주민	알레르기과	219 - 5802
환자간호를 위한 공개강좌	매주 금요일 14~15시	2층 회의실	환자, 보호자, 내원방문객	의료지원부	219 - 5521



문화유산과 문화국민의 자질

한

국에 돌아온지도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삼십살년건의 외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돌아오기로 결심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귀국한 후에 국내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적응하는데는 참으로 힘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외식주의와 같은 물질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그 가치관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아직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슬문건, 「국제화, 세계화, 선진국진입 동등」 그리고 「일류, 1등」 등의 식차와 숫자로 표시되는 전시적 의식구조 등의 구호문화가 우리 사회의 상위층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있고, 또 생활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모든 인간의 가치와 사회의 기준을 경제와 물질 위주로 평가 하려는 의식구조를 이해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우리 사회의 표면에 흐르고 있는 문화적인 면을 보면 이참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노래 프로그램, 웃음을 강요하는 자질적인 콤피디 프로그램, 그리고 사점에 발발하는 민화책들, 그저 나라 전체가 우민화의 물결속에서 놀고 있다는 감이 든다. 물론 그동안의 경제적 발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어떻게 생 각하면 오천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풍요하고도 국민을 위한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라도 왜 그런지 무엇인가 식언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심정이다.

지난 여러해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유럽을 여행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이다. 파리의 그 규모잡힌 건축문화, 잘 보존되어 있는 그 많은 미술품, 거리의 하나 하나가 다 귀중한 문화유산이었다. 이와같은 문화유산을 접했을 때 비로서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침입을 무력저항 없이 무혈로 파리를 내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이 문화유산은 불란서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실감함과 동시에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군의 무혈입성을 용인한 그 용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2차대전 말기에 연합군에 밀려서 파리에서 후퇴하던 독일의 사령관이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파리를 무혈로 후퇴했다는 사실은

문화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찬란한 문화도 따지고보면, 천년을 넘지 못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고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 이천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들 문화유산은 로마를 위시해서 폼페이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로마의 포로 로마노(Foro Romano)를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캄피도지오(Campidoglio)에서 내려다보면 이천년전에 건설된 웅장한 대리석 건물들의 폐허를 볼 수 있으며 지금은 대리석의 원형기둥들만이 그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화유산은 근 백년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복구되어 그들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천년 역사를 가진 고대 로마문화가 그리스에서 온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날 서양사에 의하면 서양문명의 발상지는 그리스라고 하며, 이들 그리스의 문화유적은 그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델피(Delphi), 올림피아(Olympia), 미케네(Mikenes) 그리고 크레타섬등지에 있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신전의 폐허는 그 시대의 사상, 종교 그리고 사회제도 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에페네의 중심에 솟은 아르토폴리스 언덕위에 세워진 웅장하고도 섬세한 파르테논은 삼천년전의 찬란했던 그리스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찬란한 고대 그리스 문화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지금 서양사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곳, 즉 오늘날의 터키를 여행 하므로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성채를 거둬해 왔던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분할하는 포스포리스(Phosolis)해협을 건너 아시아쪽에 있는 트로이(Troy), 버그만(Bergman) 그리고 에페스(Ephesus) 등의 에게해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탐사해 보면 근 사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들이 즐비해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발굴과 복구작업이 진행중인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곳이 전 세계의 문화애호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트로이는 오천년전부터 이어온 도시로서 그리스의 서사시인인 호머(Homer)의 「일리아드(Iliad)」에 트로이 전쟁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삼천삼백년전 이야기다. 트로이는 9층으로된 도시의 유적을 땅속에 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도시는 7층과 8층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에페스에는 이천년전에 예수님의 제자중의 한사람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처형된후 에

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모시고와 이곳에서 기독교를 전파시켰다는 곳으로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으며, 또 삼모 마리아가 임종했다는 집이 있다.

따라서 이 문화유산들은 서양문화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문화보다 천년 이상이나 더 오래된 문화일뿐 아니라, 이 문화가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들 소아시아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다른 지방에서 전파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쳐지는 곳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지금으로부터 육천년전에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찬란한 문화가 발생했다. 이 문화유적들을 지금도 볼 수 있으며, 이 문화가 여러 민족이동과 함께 터키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육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문화유적들을 탐사하고 싶다. 지난 십년동안 이 지방에 일어난 불행한 전쟁때문에 지금은 가기가 힘든 곳이 되었지만,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유산이 손실되지 않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이와같은 세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생각해 보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서 문화국민으로서의 자질과 바람직한 사회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문화국민의 첫째 조건은 이질문화와 습관을 이해하고 이질 문화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자기와 다른 것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과 도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소수의 권리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조건은 약한자에 대한 배려이다. 어린이들, 장애인 그리고 못가진 자들에 대해 사회나 개인이 갖는 책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를 신장시키는 것이다. 문화수준이란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 병원, 공원 그리고 고아원과 같은 복지시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명에 들지 못한 별명을 받아왔다. 참으로 슬픈일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즉 인명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국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이다.

세번째 조건은 자발적인 질서의식이다. 영국에 가면 사 람들이 반드시 줄을 선다. 버스를 기다리는 곳, 표를 사는 곳,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줄을 선다. 줄을 선다는 것은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그 밑바닥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철학적 신념이 있는 것이다. 빨간 신호등을 서슴치 않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홍수, 공격적인 운전습관, 한국에 돌아와서 기정 놀란 것중에 하나이다. 위에서 규제하는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질서가 문화국민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다.

의학과 제3차 해외 의과대학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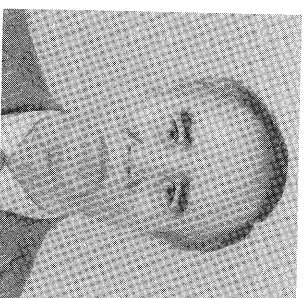
- 베트남 2개 의과대학

의학과는 92년부터 수화여행을 겸하여 해외 우수 의과대학을 탐방하고 있는데 95년도 제3차 해외 의과대학 탐방은 5월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에 걸쳐 베트남으로 다녀올 예정이다. 이번 해외 의과대학 탐방에는 李鎭熙학장, 文錫璋장보, 李一榮교수, 鄭告根교수, 金容勳부교수, 趙준필조교수, 金정은전임강사의 인솔 아래 6학년생 20명이 참가한다. 방문지는 하노이의과대학, 호치민의과대학과 동다에 있는 대우전자이다.

그동안 탐방했던 의과대학을 보면 첫번째는 92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4박5일) 일본 가와시키 의과대학과 오사카 관서 의과대학을 견학하였으며, 두번째 탐방 역시 93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4박5일) 일본 동경에 위치한 준텐토 의과대학과 성누기병원을 방문하여 각 의과대학의 교육방법과 시설을 견학하였다.

네번째 조건은 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흔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나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양을 수 없다. 법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운영된다는가, 또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와같은 국가나 사회에서는 자율적인 문화국민을 배출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 독선과 획일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긴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순간의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나은 자기를 또는 사회를 만들거자 하는 노력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사회를 문화국민 또는 문화사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金永泰 교수(미생물학교실)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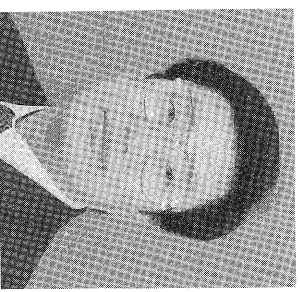
유방재건외과

유방암으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며 또 만성적 문제인 살리폰이나 피리핀 등의 이물질이 주입된 유방을 제거하고 다시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한다.

미용외과

미용수술은 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눈, 코, 유방, 몸매 등에 크게 이상이 없더라도 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고치는 수술로서 넓은 코를 높인다던가 쌍꺼풀을 만들어 준다던지 유방을 크게 또는 보기에 좋게 한다던지 하는 국히 주관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한 외과 분야이다. 쌍꺼풀 수술, 코(확대, 비변형) 성형수술을 위하여 흉터 제거수술, 내시경을 이용하여 흉터 제거수술, 내시경을 이용해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제거하는 인면부 주름 제거술, 안검 성형술, 박피술, 유방의 확대 또는 축소수술,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제거술, 복부 성형술 등이 미용외과에서 취급하는 분야이다.

이상 우리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시술하는 술기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했다. 문제는 성형외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생각보다 극심한 고통으로 번민하는데 이들 환자 및 가족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무엇이 되고 아니고를 단정짓지 말고, 성형재건분야의 전문의사와 환자가 직접 마주보고 상담함으로써 환자의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시술하는데에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존재의의가 있다 하겠다.



金冠植 주임교수(성형외과)

을 이용하여 재건하는 것이다.

하지복원외과

손 뿐만 아니라 발에 생긴 개방성 골절로 인한 조직 결손 및, 만성 골수염 등을 미세혈관수술이나 근육 이식수술 등을 이용하여 재건하는 것이다.

악안면외과

교통사고 등 심한 사고로 인하여 긴 악안면골절이나 뼈의 결손, 또는 그 후 유증으로 인한 안면부 기형이나 턱의 이상형태 등을 교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두개골의 기형, 눈과 눈시어가 먼 선천성 기형, 돌출된 턱뼈 및 관대뼈 등 두개안면골의 기형들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두경부 종양외과

안면부 및 구강내에 발생하는 종양을 제거하고 이에 따르는 이차적인 안면부의 변형을 성형수술을 통하여 정상에 가깝게 재건하는 수술이다. 또한 피부에 발생하는 혈관종, 각종 피부암(기저 세포암, 편평 상피 세포암, 흑색종) 등을 수술적 요법으로 절제, 재건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선천성 기형외과

너무도 잘 알려진 언청이 수술을 비롯하여 구개열(목젖이 갈라진 경우), 귀의 기형(소이증, 매몰이 등), 수부기형을 비롯한 선천성 기형을 수술, 교정하는 것으로서 없는 귀를 재건해 주는 등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원하는 수술.

화상외과

화상환자의 치료 및 화상에 의하여 유발되는 신체구조의 변형(흉터, 반흔성 구축)을 교정 치료하는 것으로서 피부이식 등의 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성형외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쌍꺼풀수술 내지는 코 높이는 수술 등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형외과란 위에서 말하는 미용수술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재건외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나 직업상에서의 외상으로 손실 또는 손상된 부위를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종양제거나 감염 등으로 결손된 부위를 재건해 준다던지(예 : 유방암 제거후 유방재건) 선천성기형, 즉, 언청이 또는 수부기형 등을 정상에 가깝게 교정해 주는 특수 외과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원적인 성형외과 시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폭넓게 구비하고 있어야 하기에 대학병원 같은 대형종합병원의 성형외과가 커다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국도로 발달된 미세수술 방법은 성형외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새 분과로 등장했다. 여러 신체 손상 부위를 미세수술을 이용한 조직이식술로 상당히 자유롭게 재건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시술을 9가지 큰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부외과

인대절단, 파열, 골절 뿐만 아니라 미세혈관수술을 이용하여 완전히 절단된 손, 발 등을 다시 붙여주는 것까지 손의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다.

미세수술외과

이것은 하나의 수술방법으로 현미경을 통하여 육안으로는 할 수 없는 미세부분(혈관, 신경 등)을 수술함으로써 절단된 손가락, 손 등을 다시 재생시켜 준다던가, 종양절제 후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신체 결손부위를 조직 이식술

금성 신우신염

금성 신우신염이라 함은 주로 세균에 의해 갑자기 신장과 신우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질환은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에서는 대부분 여성에 흔한 질환으로서 여성 인구의 10%내지 20% 정도가 일생동안 한번쯤은 앓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증상으로는 대부분 38.5℃이상의 고열, 오한, 측복부(옆구리) 통증 등이 나타나고 그 외에도 권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약 50%정도의 환자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방광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 최근에 방광염이 있던 환자가 위에 열거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수가 있다.

이 질환은 원인균이 대체로 한쪽 신장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 기전은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임파관을 통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가장 흔한 경우로서 원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가서 다시 요관을 통해 신장으로 가는 경우이다. 여성의 요도는 가까운 위치에 질이 위치하여 질 분비물에 의해 감염의 기회가 남자에 비해 많은 편이고, 또한 요도의 길이가 남자에 비해 짧아 원인균이 쉽게 방광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금성 신우신염의 발생 빈도가 훨씬 많은 것이다. 따라서 남자가 금성 신우신염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요로 계통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성 신우신염을 일으키는 원인 균으로는 대장균(*Escherichia coli*)이 약 85%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각종 세균, 바이러스, 진균(곰팡이)등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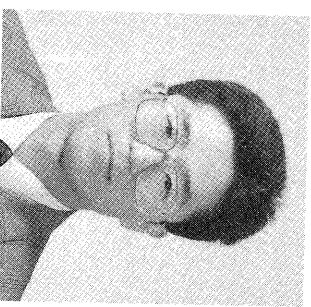
금성 신우신염의 진단은 위에서 열거한 제반 증상과 진찰 소견 그리고 소변배양 검사상 원인균이 의미있게 배양된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이 질환의 진단시 헛거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질환의 원인이 단순한 원인균 감염이 아니고 요로 계통의 구조적 이상이 내재해 있어서 발생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로 계통의 구조적 이상은 예를 들면 요관이 나 요문에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요로 계통 어디인가 돌이 있는 경우, 요관 바깥의 구조물에 의해 요관이 눌러서 정상적인 소변의 배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미치막으로는 소변이 방광에서 요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아래로 배설되지 못하고 거꾸로 요관을 통해 신장으로 올라가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로폐쇄에 의한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장 초음파 검사를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료는 안정과 수분의 충분한 공급 그리고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로 환자에 따라 혹은 상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대부분 투약 시작 후 48시간이 지나면 세균의 수가 감소하며 항생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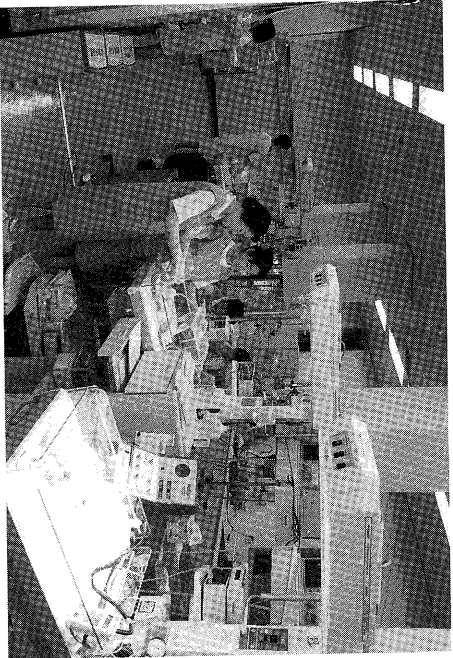
여기간은 최소한 2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항생제 치료로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는 경우는 항생제를 끊은 후 1~2주후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해서 재발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치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증으로는 세균이 혈액내로 퍼져 전신으로 번지는 패혈증이 있을 수 있으며 신기능 혹은 신주위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신우신염이 요로 폐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혹은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과 동반된 경우 흔히 발생을 하며 이러한 경우는 신우신염의 증상 등이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드물게는 생명을 앗을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결론적으로, 금성 신우신염은 초기에 진단을 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아울러 요로 계통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와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



金興秀 전임강사 (신장내과학교실)



■ 의료원, 시설확충 마무리

소아과는 미숙아들에 대한 치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오후 4시에 오픈식을 가졌다. 이번 공사는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16병상을 30병상으로 늘린고(사진), 미숙아들에게 필수적인 인큐베이터도 7대를 추가로 구입, 모두 19대를 마련한 것. 또한 Bed(Bed Head Unit)도 18개를 늘려 32개를 설치 완료했다. 소아과 洪昌晔 주임교수는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하는 미숙아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편으로 지역 내에서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5층에 자리잡고 있던 집중치료실 보호자대기실도 준중환자 집중치료실 확장과 관련, 장소를 지하3층으로 이전했다. 이밖에도 의학과 휴게장소인 선인재도 확장공사를 마치고 4월17일 문을 열었다.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

- 白雲基교수

미국 템플대학 白雲基교수가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동(Brain Pool)의 일환으로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 3월23일자로 초빙됐다.

의학과 증원과 간호학과

신설 교육부에 신청

본교는 96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의학과 정원 50명 증원 및 간호학과 신설을 신청했다.

직장예비군 훈련

지역에서 실시

총무과는 95년도 부터 예비군 훈련이 강화됨에 따라 훈련시간과 회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의료원 교직원들이 일시에 훈련에 참가할 경우 병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우려, 교직원의 개인별 주소지로 진출시켜 각 지역별로 분산 훈련을 받도록 했다. (문의 : 비상계 회계 5417~8).

교직원 주치장 이용안내

총무과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내원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차림은 지하3층 혹은 병원과 의학과 사이의 야외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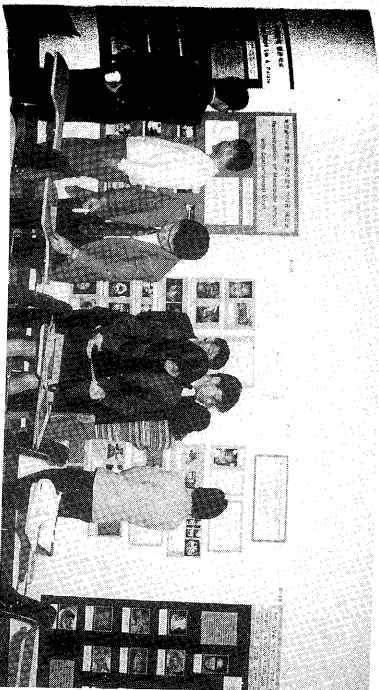
치과 심포지움 개최

치과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부터 병원 2층 회의실에서 「인면기형의 치료전략, 이리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학교

신내버스 일부노선 병원까지 연장운행

병원을 찾는 환자와 내원객들이 불편사항으로 지적해 오던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됐다. 수원역과 수원시내를 중심으로 운행되어 오던 버스노선 2번, 3번, 13-2번 등 3개노선이 기존의 노선을 돌아 아주대 학교병원(종전)까지 연장 운행하게 된 것. 총무과에 따르면 이번 노선버스의 연장운행은 병원의 민원사항을 南平祐 지역구 국회의원(필달구), 수원시청 등에서 적극연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수원역과 병원간에 잠정적으로 운행하던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행은 중단됐다.

번승	배차간격	주요 정류장
2	15분	아주대병원-동성여중-연무중학교-동문-종로-남문-세류동-수원역-수원여고(고동동)-화서시장
3	40분	아주대병원-아주대입구-동수원사거리-남문-북문-서문-병무청입구-화서시장-천천이파트
13-2	15분	아주대병원-동성여중-연무중학교-동문-못골-뉴코아백화점-남문-수원역-진흥청-철보



교직원식당 설문조사

실 및 치과대학 주임교수, 경기도 치과의사회, 수원시 치과계 원로 등 1백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는데 특강 강사로 나선 연세대학교 치과 대학 이충국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최신 지견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화 분야의 연구와 임상 중점에 관한 포스터전(사진)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험, 본격 업무 돌입

의료원 신용협동조합은 5월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실험은 업무개시 기념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조형원에게는 예뻐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자세한 사항은 구내 6048, 6052번.

부양가족 확인서 미제출 교직원 수당지급 중단

앞으로 부양가족 변동여부를 확인 받지 않은 교직원들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인사과에 따르면 일부 교직원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4월2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교직원에게는 부득이 수당지급을 중단한다고.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 개설

알레르기과리니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알레르기 및 기관지 천식환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알레르기 및 기관지 천식질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최신 치료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을 개설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체인구의 16~17%에 달하는 알레르기 환자와 4.6%에 해당하는 천식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서 결핵(1.8%)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천식은 질산가스, 이황산가스, 분진 등이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가 좁아져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알레르기과리니 朴海仁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들은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기에 알레르기 및 천식교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병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고 교실을 개설했다고 의미를 밝히면서 늘어나는 소아환자를 위해 소아과 李秀英교수도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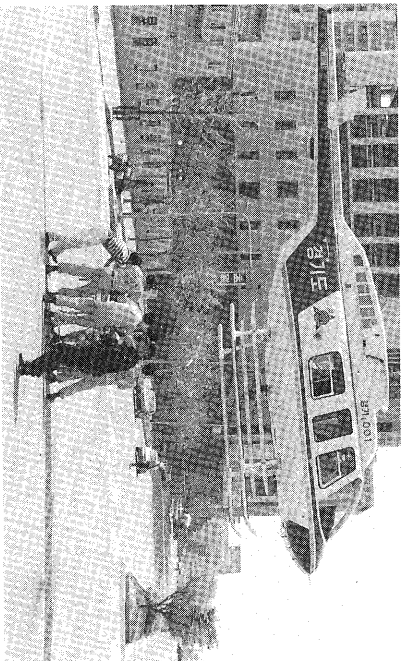
날짜	제 목	내 용
5/4 (목)	천식이란?	기관지천식, 해소에 대한 설명과 치료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
5/8 (목)	알레르기 와 천식	주위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기관지천식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과 예방대책
5/11 (목)	천식의 원인검사	천식과 알레르기의 원인검사를 위한 특수검사에 대한 소개와 검사시 주의사항과 각종 결과에 대한 설명
5/25 (목)	치료 및 환경관리	최근에 개발된 약물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주의사항, 면역요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환경관리, 정서관리, 운동요법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

1. 강의는 오후 1시~2시까지 병원 2층 회의실에서 진행.
2. 자세한 사항은 0331-219-5902로 문의.

제3회 의무행정 장기연수과정 참가비 지원

의료원은 기획과 감승권 외 14명을 대한의무관리자 협회에서 주최하는 의무행정 장기연수과정 파견 교육시키기로 했다. 올해로 세번째로 열린 의무행정 장기연수과정은 지난 4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토, 일요일에 격주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강의가 있다.

응급의학교실 - 춘계학술대회 개최



응급의학교실에서는 「95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4월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아울러 대령순상 환자구조를 위한 제1회 재해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실시된 재해대응훈련은 자동차 다중 추돌사고로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 이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가능케 하는 데에 착안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소방서, 수원경찰서, 군부대, 적십자사, 방송사, 신문사 등 11개 기관이 참가했다. 응급의학교실은 훈련에 앞서 지난 4월19일부터 2일까지 구급구조대원 40명을 대상으로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경추고정법, 사지부목 적용법, 숙 방치용 하의착용법 등을 교육하고, 학회기간중에는 수원 및 인근 중고등학교 인호교사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워크숍이 이번 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가상 사고현장에서 한자로 등장한 서울 보건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 학생 80여명은 특수분장을 하고 참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응급의학과 趙준필교수는 각종사고에 따른 응급의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체계에 대한 각 기관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보험안내 ·

본원은 내원환자의 95% 이상이 보험환자이며, OCS체제로 관리되는 병원으로써 처방 입력과 동시에 진료비가 책정되므로 처방 입력시 보험기준이 적절히 가미가 되어야만 진료비의 누수를 없앨 수 있어 의료보험 급여기준 등에 관한 지식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과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의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전 병원인에게 전달하여 환자진료나, 진

료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소개 내용은 새로 변경되는 의료보험진료 급여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진료비심사위원회 의결사항, 그동안 진료비를 관리하면서 오류, 누수가 많았던 부분에 중점을 두어 소개할 예정이다. 자세한내용은 보험과(T.5428)로 문의.

95년 의료보험수가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

95년도 의료보험수는 약제, 재료대를 제외한 수가부분에 대해 평균 58% 인상.

제장 기본 진료료	제장 처치, 수술료	제장 검사료	제장 처치, 수술료
1. (변경) 1세 미만 소아 진찰료 거진금 액 상향분리	1. (변경) 자-18-1 화상처치료 주:화상처치용 거즈, 붕대 등의 직출물 처리비용으로 화상범위별 500~6,000원 별도 신청할 수 있다.	1.(항목추가) 혈액화학검사 체감적용 항목에 나-271 2-GTP 포함	1. (신설) 라-511-가 인공수정체 삽입술 107,400
2. (변경) ICU환자 입원시 ICU 재원기간 별 환자면진료의 체감을 적용항목 폐지	2.(신설) 자-350 체외충격파 쇄석술(3회 기준) 376,490	2.(신설) 나-700-가 콜팔도 검사 (1) 1부위 23,000 (2) 2부위 이상 34,500	4. (신설) 라-511-가 인공수정체 삽입술 주: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는 소정금액의 50%를 인정한다.
제장 검사료	2.(신설) 자-350 체외충격파 쇄석술(3회 기준) 376,490	1.(항목추가) 혈액화학검사 체감적용 항목에 나-271 2-GTP 포함	
제장 이학요법료	3. (신설) 노관 결석 또는 담낭결석 (신, 노관 결석 또는 담낭결석) 주:질식분만을 위하여 8시간 이상 분만 전 감지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 인정한다.	2.(신설)나-700-가 콜팔도 검사 (1) 1부위 23,000 (2) 2부위 이상 34,500	
		1. (신설) 사-8-1 레이저 치료(1일) 3,000	

■ 본원 내방

▶4월 3일 동경대학교 건축과 나가자와 주임교수, 아미사다 조교수

▶4월12일 영국대사 토마스 헤리스와 롱 허스트 정치담당 사기관

월 어느 날 오후, 기쁜 종은 몽상

퀵

(모여리품동선이 컴퓨터와 Kiss하는 순간) 어쨌씨구리. 아! 무너지는 이 가슴. 아직 춘곤증에 헤매며 게슴츠레한 눈으로 휘돌아 보니 지금은 오후 두시반. 과장님께서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쓰시고 화병이형은 새금계산서에 머리칼을 쥐어짜고 계신다.

94회계년도 결산서를 들고 달랑겨린게 엇그제데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한 것조차 모르고 경리과 참살이래 숨든지 어언 딱찬 2년이다(내 청춘을 돌리도). 허참! 세월이 우수와 같다더니 5월이면 입사한지 3년차에 들어가는 풋내기가 자칭 고참이 되어 부딪히는 복도 복도마다 언제 결혼하느냐는 걱정이난 걱정(내 마음은 아직 이팔청춘인데, 잉~ 괜히 그레)을 들어야 하는 나이가 돼 버리고 목에 힘주고 일하는 것도 잠깐 돌아보는 순간 순간이 얼마나 바쁘는지!

아이, 오늘은 이왕 공상에 빠진 감에 찌릿찌릿 찰러보는 정모계장님의 눈을 피해 어느새 내 머릿속에서 뿔뿔을 돌려본다.

아침 7시30분, 지각이란 걸 해본적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

날씬한 하리와 외모(아싸아싸), 007 기방을 들고 책상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탁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리는 기방에 서류와 섞여있는 작은 도사립.

그 순간“곽선생, 니 아침 목은나? 같이 목자.”그 특유의 억양으로 소년보다 더 쑥스러워 하시며 웃으시는 과장님의 아침출발 시간이다.

다음 두분 계장님의 증상등성한 발걸음 소리. 날카로운 눈매에 아침 저녁 변함없이 점심시간조차도 업무애기에 날새는 졸 모르시는 정계장님. 그러나 그 속에 숨은 것은 말 그대로 가슴이 파뿔한 남자레나 뭐레나.

겸손하기로는 이 병원에 따를 자 없고, 늘 “my 미수(misake의 준말일)”를 외치시지만 업무에 미수란 있을 수 없다는 이계장님.

새금계산서=화병이형. 이 병원 새금계산서를 만

허참! 세월이 우수
와 같다더니 월이면
입사한지 3년차에 들
어가는 풋내기가 자
칭 고참이 되어 부딪
히는 복도 복도마다
언제 결혼 하느냐는
걱정이난 걱정을 들
어야 하는 나이가 돼
버리고....

지는 모든 이의 머리속에 새금계산서의 차리방법을 넣어주시고, 찰딱서니 없는 업무 파트너(히히, 나야 나) 때문에 속케나 싹들만 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바더와 같은 우리의 구호야빠!

나한테는 업무 고참이고 평소에는 뜸직한 경리과의 짜나이 감산생님. 썰렁하리라고 한 말이지만 주변의 모든 이를 웃겨버리고 미는 그 유머러스함이란. 이 병원 모든 여직원들이 좋지에 동상(동생)이 꽤 버리는 자칭 쏘다리를 외치는 이형수(이형수) 선생님. 회식을 비롯한 자잘한 일의 마무리에서부터 언제나 열심히 두 눈빛은 반짝반짝하는 토끼 한마리를 연상시키곤 한다(이 소리 들으면 나,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지 몰라). 제일 막내이자 경리과의 미스코트 이선희씨. 보는 이마다 기방은 언제 짜내고 묻지만(노래 거서중) 실제 본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도 기방을 짜본적이 없다는 슬픈 전설이. 호호호.

그러고 보니 어느새 경리과에 책상이 꽂차 있다. 경리과라는 본의 아닌 특수함 때문에 가끔은 개인 시간보다는 업무시간에 나를 맞추다보면 허투허가 팔각팔각 넘어가 버리지만 그레도 출근시간 문앞에 들어설 때의 낯설지 않음은 나도 경리과맨이 되었다는 증거일지도.

파리링 ~. 이 기분좋은 공상을 께는 이 누군고? 털그럭/끼리링/빠인빠이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아! 내가 이러고 있을때가 아닌데 이리다 결산 늦으면 또 바타지게 구박 받겠지?

회계는 아무리해도 본전만 찾으면 다행이라는 정계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손모아 새기며 병원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도 나는 전표철을 들고 댕다.

어디로? 글썬?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파뿔한 봄비가 얇게 내리는 날 정장보근하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날을 향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경리과)과 봄이유회를 갈 수 있는 여류가 생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박 우 실(경리과 근무)

